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지속추진 촉구

군산시의회·군산상의, '범시민 서명운동' 서명부 전북대병원 측 전달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는 13일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10월 20일부터 진행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지속 추진 범시민 서명운동'의 서명부를 전북대병원 측(총장 이남호, 병원장 강명제)에게 전달하고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지속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북대병원 측에 전달하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지속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묻고자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해하여 불과 13일 만에 지속 추진을 원하는 17만

4.146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대병원 측에서는 군산시민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조속히 건립을 진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군산시의회와 인근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 함께 추진해 왔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실질적인 진행 없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군

산시의회와 합심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의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지난 7월 방문했을 때 말씀 드렸다시피 대다수의 군산시민들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건립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국고상환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 현 상황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병원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을 무작정 추진할 수도,

그렇다고 군산시민과 약속한 국비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사회에서 여러 사정을 잘 살펴서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853억원에 국비 568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전북대병원의 재정악화로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이에 군산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 동안 걸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지속 추진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지속 추진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열망을 이끌어 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청 출입기자단 "시의회 언론악법 규탄 성명"

"초법적인 언론 악법 내놓은 익산시의회 공개 사과해야"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이 개인적인 사유 자처법규를 개정해 해당 익산시의원과 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13일 냈다고 밝혔다.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출입기자단은 성명서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반론권 보장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된 보도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준수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과 구제를 신청한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보도 시연에 대해 상호간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정정보도에 대해 1년간 홍보비 지원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초법적 발상"이라며 "상호간 합의를 해도 처벌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언론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율러 "조례가 시행되면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정정보도는 지리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조례는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 중단하겠다는 타 기관이나 시민 등 누구나 해당되

록 규정해 무리(無理)도 이만저만 무리가 아니다"면서 "익산시 홍보비 사용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은 송호진 의원이 지역의 한 주민과의 감정싸움을 조례에 담은 행태를 비판하면서 "나머지 2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마디 이견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초법적인 언론 악법을 내놓은 익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개인감정을 조례에 담은 송호진 의원은 권한 남용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월 정의당 소속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단 한차례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 중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입기자단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등 아이들 건강한 성장 기여 높이 평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7회 어린이 안전대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향점을 평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민선 6기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군산시는 전국 최초 어린이 전담부서 신설,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등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아동인권교육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연계하여 아동유치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권리광장 조성 추진, 놀이터 환경진단과 안전활동가 양성,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안전교육 등 NGO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 안전교육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이번 대통령상 수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제7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은 어

린이행복도시 조성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어린이 안전은 교육과 연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육체험 시스템 구축을 중점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07개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329개소에 CCTV 1,54대를 설치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어린이안전체험관을 통해 교통, 생활, 재난 등의 체험 교육을 비롯한 아동 권리증진과 아동학대 예방 순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영등동 '세광골드' 선정

익산시가 지난 10일 익산귀금속보석 산업 발전협회를 개최하고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영등동 귀금속 단지에 위치한 세광골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세광골드는 많은 양의 디자인 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 금, 은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전문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인증한 업체인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는 업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외 판로 개척 시 바이어들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로식당 운영기관' 20일~24일까지 공개 모집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결식 노년 무료급식을 위한 군산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기관의 공개모집에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정관의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춘 법인이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11월 20일에서 24일까지 시청 복지지원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기타 신청자격이나 운영조건, 제출서류 등은 24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전화(☎ 454-318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해외기업탐방 프로그램 통해 재학생 3명 취업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한 2017년 일본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 3명이 일본 현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13일 원광대에 따르면 새로운 해외취업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일본기업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한 원광대는 '일본기업탐색 PT공모전'을 거쳐 선발한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해외취업 전문기관인 (주)XIC와 함께 일본어 스터디 활동 및 사전 일본취업 맞춤형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업탐방부터 면접을 통한 최종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철저하게 준비를 마치고 도착한 일본기업탐방 학생들은 IT, 유통물류, 호텔 등 3개 분야의 5개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일본기업에 대한 비전과 공정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11월 3일까지 진행된 탐방 일정



에 맞춘 취업인터뷰에 참여하면서 일본 비즈니스 매너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일교유와 4학년 박희상, 안수현, 이주희 학생이 일본 유망 유통기업인 (주)에이산(EISAN)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는 기쁨을 토했다.

김도중 총장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일본기업탐방은 학생들이 국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외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원광대는 앞으로도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재학생 대상 해외취업 준비과정 등 해외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